

양평지회

본회 이계훈 회장이 지난 12월 6일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 송년회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영 양평지회장, 전진선 양평군수, 공사교장을 역임한 이찬 장군을 비롯해 지부회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해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용문산 관재대 위문과 봉사활동을 통해 현역과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양평지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예비역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 안보와 지역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영 지회장은 “중



양회장의 참석은 양평지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신종균)는 12월 11일,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족 40명을 포함한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전우회원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과 행복, 지회의 발전을 함께 기원했다. 원주지회는 이번 송년회를 통해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전우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주지회

전주지회(지회장 최석수)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전주 백송회관에서 26명의 전우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최석수 회장은 송년인사에서 “2025년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을 모두 잊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우회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한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하는 전우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따뜻한 식사와 여흥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고, 집행부가 마련한 선물과 2026년



달력을 수령한 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철원지회

철원지회(지회장 구한서)는 12월 11일 저녁, 고성정 드림호텔 1층 ‘고성정 두부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 드림주점에서 송년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전우회의 결산보고를 진행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회는 참석 회원들에게 단체복과 2026년도 달력을 지급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를 더했다. 구한서 회장은 “2025년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덕분에 우리 철원지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으며, 2026년에도 변함없는 응



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전우애를 나누며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충남서부지회

충남서부지회(지회장 조봉환)는 지난 10월 중순, 최고 선배이신 병70기 회원을 모시고 특별한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50년 전인 1973년 당진시 합덕읍에서 공군향우회로 출발한 지회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진행되었다. 지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공군 출신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기리고, 건강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단합을 다짐하였다. 이번 자리는 선후배 간의 전우애를 확인



하고, 앞으로도 지회의 전통을 이어가며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충주지회

충주지회(지회장 조동주)는 12월 19일 충주시 컨벤션센터에서 5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별세한 전우회원 고(故) 전용식·김주용 회원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조동주 회장의 인사말과 고문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전우애를 다지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화합을 기



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12월 19일, 전우회 회원과 보라매봉사단 회원들을 모시고 2025년도 송년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군 달력과 선물이 전달되었으며, 특히 2025년 12월 제정·통과된 수원시 ‘군 전우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2026년도 추진할 사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새해 첫날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원화성 여민각의 타종 소리에 맞추어 행궁광장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눔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공군전우회 수원지회와 보라매봉사단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새해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송년회와 새해맞이 행사는 회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우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포천지회

포천지회(지회장 신건영)는 지난 12월 15일 포천시 신읍동 소재 우미락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돌아보고 전우애를 다지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송년회는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 실시



공사총동창회는 10월 25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2025년 공사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를 열고 동문과 생도, 지역주민 등 14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임관 10·20·30·40·50주년을 맞은 23·33·43·53·63기 동문들이 참석해 학교장 환영사, 추억 영상 상영, 생도 응원단 공연, 발전기금 전달, 감사패 증정, 공사 비전 2050 소개, 생도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졸업생들은 공군과 공사의 발전상을 확인하며 후배 생도들을 격려했고, ‘정예 우주공군의 시작, 초일류 공사’라는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행사 전에는 ‘영원한 빛’ 추모비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순직 장병을 기렸으며, 행사 후에는 생활관과 항공기전시장 등 교내 시설을 둘러봤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2월 18일, 올 한 해 운영결과를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하고 33차 신입 회장에 황성진(예)중장을 선임했다.

총회에는 이역수, 이한호 총장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 7명과 5~67기에 이르는 동문 170여명이 참석하여 32차연도 운영결과와 새롭게 출범하는 33차연도 총동창회 임원진 편성을 의결 및 승인하였다.

황회장은 취임사에서 “모교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무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공군



발전에 기여하고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보(26기), 장조원(30기), 신익현(32기) 동문 등 3명을 모교와 공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공군항과고총동창회 전투부대 위문

공군항과고 총동창회는 11월 17일 미사일사령부 황병산 포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산 정상에 위치한 황병산 포대는 특수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책임감과 자긍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총동창회는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장병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12월 5일에는 평택 소재 7항공통신전대를 찾아 또 다시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7항공통신전대는 공군 정보통신의 핵심



부대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대장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공군ROTC 장교회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석찬)가 지난 12월 19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총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뒤 처음 열린 행사로, 공군본부 인사참모차장 김정오 대령과 공군학사군사학교장 고경덕 대령을 비롯해 11개 학군단 단장과 후보생, 학사장교회 관계자, 국군장병유족회 및 미공군 전공기념사업

협회 인사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은 화환과 축사, 군악대 공연을 지원하며 행사에 품격을 더했다.

김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군학군출신 장교들의 결속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 공군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군학사장교회, 제16회 공군참모총장배 골프대회



공군학사장교회(회장 최병채)는 지난 10월 25일 성남체력단련장에서 ‘제16회 공군참모총장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공군사랑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 행사로, 공군 주요 관계자와 예비역 인사, 협력단체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에 앞서 학사장교회는 성남체력단련장에 대형 TV 2대를 기증해 운영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학사장교회는 매년 대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사회와 군에 환원해왔으며, 올해는 공군교육사령부 산하 비성장학연구재단에 1천만 원을 전달해 항공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만백운동으로 조성된 4천만 원을 공군에 기부해 장교 후보생 복지와 교육환경 향상에 보탬을 주었다.

최병채 회장은 “우리의 기부는 시혜가 아닌 책임이며, 공군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하 회원,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수상

본회 이영하 회원이 지난 12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국방 최고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 회원은 시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올해 10월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문화발전 부문 특별상, 11월 이어도문학회 문학상, 12월 한운은 문학상 중견부문 우수상과 제20회 대판문학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봉사로 전우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영하 회원은 문학과 봉



사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병오년의 새 각오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루츠팀 회장)



필자는 최근에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띠의 해’에 새로운 각오(覺悟)를 다지기 위해 소원성취 도량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마이산(馬耳山)으로 향했다.

마이산은 멀리서 보면 말(馬)의 두 귀(耳)처럼 솟아있는 봉우리로 보인다.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봄에는 안개와 구름 속에서 솟아난 듯하여 ‘뚝대봉’, 여름에는 용의 뿔 같은 봉우리라 하여 ‘용각봉’, 가을에는 말의 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이름 붙였다는 ‘마이산’,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붓끝 같다고 하여 ‘문필봉’이라 부른다. 한 쌍으로 여겨지는 봉우리는 동편 암마이봉과 서편 솟마이봉이 있는데 암마이봉(686m)이 솟마이봉보다 약간 높다.

특히 암마이봉에 있는 마이산탐사(塔寺)의 산신각은 ‘영험하다’는 입 소문이 남아 있는 곳이다. 마이산 남부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 1.9Km 정도 떨어진 탐사로 향했다. 마이산탐사는 이갑용 처사(1860~1957)가 쌓은 108 개의 돌탑으로 유명하다.

이갑용 처사가 25세에 마이산에 입산하였는데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뒤숭숭했고 어두운 세속을 한탄하며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를 하며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갑용 처사는 사람들의 죄를 빌고 창생(蒼生)을 구할 목적으로 30년을 한결같이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았다. 그렇게 쌓은 108개 탑에는 백팔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쌓았다고 한다.

이 탑들은 천지탑, 오방탑, 일광탑, 월광탑, 약사탑, 중앙탑, 월궁탑, 용궁탑, 신장탑 등으로 이름이 붙어 있으며, 탑마다 각각 나름의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천지탑’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우주의 음양을 나타내

고, ‘오방탑’은 다섯 방향에서 ‘천지탑’을 호위하고 있다. 이갑용 처사는 98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과 기도로 시종일관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 탑들은 돌을 다듬어서 만든 탑이 아니라 자연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탑으로 그 높이가 1m에서 13.5m에 이르고 있다. 돌탑의 형태는 일자형과 원뿔형이 대부분인데 크기는 다양하다.

대웅전 뒤의 천지탑 한 쌍이 가장 크며 높이는 어른 키의 약 3배 정도 높다. 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참으로 웅장했다.

암마이봉 아래 탐사는 80여 개의 돌탑으로 유명하다. 겨울 강한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긴 세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신비의 탑들이다. 겨울 산 절벽이다 보니 곳곳에 통제가 있긴 하였지만 올라가 둘러 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신은 당신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 가면서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위치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만하게 자신의 존재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

왜 영혼이 있는 길을 가지 않는가?를 묻게 된다. 우리는 매일 매일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젊어서 누린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미련을 두지 말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모든 것에 새 숨결을 불어넣을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할 것도 많고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에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각오(覺悟)를 단단히 다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미 합참의장 지휘비행, 한미동맹의 역사적 이정표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한미동맹 70년사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였다. 양국의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함께 지휘비행(Command Flight)을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70여 년을 이어온 양국의 혈맹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다.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성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존 대니얼 케인(John Daniel Cane) 대장은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 를 마친 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하여 연합

편대를 이끌고 지휘비행을 하였다.

진영성 합참의장은 KF-16에 탑승하였고 케인 합참의장은 미공군 F-16에 탑승하였다. 이날 편대비행에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 등 총 5대의 항공기가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비행경로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조명하는 의미를 지녔다. 6.25전쟁 당시 미군의 첫 전투지(오산), 국군의 첫 승전지(춘천), 참전용사들이 잠든 현충원(대전) 그리고 세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평택) 상공을 비행하였다. 이는 과거 피로 맺어진 헌신을 기억하고 현재의 굳건함을 과시하며 미래의 변함없는 약속을 다짐하는 상징적 경로였다.

양국 합참의장의 전무후무한 지휘비행을 보며 공군 장교 출신으로 올해 임관 50

주년을 맞이한 나로서는 먼저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떨렸다. 그러나 이번 비행은 단순한 공군의 역사로 남을 일이 아니다. 국군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한미동맹의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번 역사적인 합동 지휘비행이 성사된 배경에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거듭되는 도발은 한미 양국에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의 억제력은 더 이상 문서상이나 수사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지휘비행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가장 확실한 억지력이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전투기에 함께 몸을 실었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무엇보다 두 합참의장이 모두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비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만약 두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공동 지휘비행은 불가능하고 그저 ‘탑승 체험’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팀워크’를 생명으로 한다. 두 의장은 작전 브리핑부터 비행까지 ‘파일럿의 언어’로 소통하며 한미연합전력의 핵심을 공유했다.

특히 단순한 ‘동승’이 아닌 ‘지휘비행’이다. 양국 군사력의 정점에 있는 두 지휘관이 연합 공중작전 태세를 한반도 상공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휘했다는 실전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양국 최고 군지휘관이 동일한 기종

으로 지휘비행을 수행했다는 것은 한미 공군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완벽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또한 이 역사적 지휘비행은 명확한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이다. 적에게는 공포심을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준 것이다. “우리의 최고 지휘관들이 함께 하늘을 날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이는 ‘Fight Tonight’을 넘어 “We Fight Together, from the Top(우리는 정상에서부터 함께 싸운다)”이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억제 메시지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의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한미 양국의 군대는 최고 지휘관부터 일선 병사까지 하나로 손잡고 있다.” 이는 ‘철갑동맹’이라는 표현이 결코 외교적 수사가 아님을 증명하며 국민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다.

한미 합참의장의 이번 합동 지휘비행은 ‘동맹의 일체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 양국 합참의장이 함께 비행하며 나눈 교감과 연합작전에 대한 의지는 그 어떤 공식 성명이나 문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 역사적인 비행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가치와 신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하늘에 아로새긴 역사적 비행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국방안보 없이는 자유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 건국 이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가장 강력한 힘은 한미동맹이다. 한미 합참의장의 지휘비행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적 다짐이다.

고난의 축복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미 버지니아 바이블대학교 부총장)



우리는 간혹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생각할 때가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세상사는 일이 힘들 때 대체로 그런 의문을 자신에

게 던져보지만, 힘든 것 자체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이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민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하등 동물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고민한다.

인간의 고민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정신을 풍요롭게 하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대부분 인간이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숨과 근심,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원하는 것이 그때마다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보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지식이 있는 학자이건, 무식한 자이건 간에 나름대로 고민과 슬픔을 갖고 살아간다.

흔히 우리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환경이 변하고 어려워지면 현실에서 당황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며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된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내가

고통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I suffer Therefore I am)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설교자 랠프사크민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해 놓았다. 우선 첫째, 개인의 죄 때문에. 둘째, 집단적인 죄 때문에. 셋째, 실수로 인해서. 마지막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나 욥 등 많은 선지자들이 시련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는 가운데 커다란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련은 고통스럽고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만, 이 같은 시련을 통해서 보다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최근들어 여러가지 상황에서 필자가 많은 고민을 하며 느끼는 것은 뱃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돛대(mast)다.

배를 건조하는 사람들은 돛대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두 가지 작업을 한다고 한다. 우선 바닷바람을 받는 높은 언덕의 우람한 나무를 점 찍어 둔 다음 그 나무 주변의 모든 나무를 벌목해서 그 나무가 불어닥치는 바닷바람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놓는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그 나무는 해안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간간히 쓰며 아주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 나무를 베어서 돛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돛대는 강풍을 견디어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

치는 것이다. 금이 풀무불에 들어가 연단된 후에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이 되듯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벽에 못을 박을 때 망치로 그 못을 힘껏 치면 칠수록 못은 잘 박힌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남기 위한 고난의 훈련이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며 이를 경험한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게 된다.

시련과 고난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당당함으로 받아들이자. 이를 피하고 좌절하는 자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시련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 뿐이다. 시련

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말자.

뜻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없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악한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로 말했던 바울의 간증이 곧 고난당하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역(逆)으로 말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 베풀고 여유있는 나눔의 마음, 빈손 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고통은 지나친 이기심과 과욕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기대는 존재”라며 “언젠가는 조락(早落)의 들녘처럼 모든 욕망을 끊고 가야한다.”는 ‘무소유’의 저자 범정스님의 설법이 생각난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서와 대한민국 안보

최명상 (전 공군대학총장(공사16기), Paris-1(Sorbonne)국제정치학박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그의 정

치철학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We will make America safer, richer, freer, greater and more powerful than ever before.)”고 했다. 미국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마다 국가안보전략서를 공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국방부 재편성법(Goldwater-Nichol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제정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다. 골드워터 상원의원이 전쟁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그 근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1990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입법 성공사례이다. 국가대계의 국화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애국적인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선거공약인 미국우선주의를 반영하여 미국본토 보호, 미국경제 번영증진,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평화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4대 주요전략으로 제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여 압도적인 군사력 회복, 동맹 강화 및 경제안보, 국경통제 강화, 사이버안보 확보 등을 명시했었다. 이에 비해 이번 국가안보전략서 2025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단위의 세력 균형과 각국의 독자적 세력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다. 미국 안보의 중요전략을 포괄적으로 4장에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제1장에는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제2장에는 미국이 세상에 원하는것을 명시했고, 제3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의 획득수단을 분석했고, 끝으로 제4장에서는 대륙별 미국의 전략을 명시했다. 우선순위별로 첫째, 미 본토를 포함한 서반구 대륙 안보, 둘째, 유럽보다

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안보를 먼저 제시했으며, 세번째, 유럽 대륙지역, 넷째, 중동지역, 다섯째, 아프리카지역 안보전략을 서술했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하며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으로 동맹국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의 경쟁보다는 미주대륙 중심의 서반구 안보, 대외무역 균형, 미국 제조업 재건, 불법이민 통제 등 미국 본토와 직결된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저지할 의도가 없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그 임무를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특히 양안관계에서 타이완을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언급했다. 타이완이 반도체 공급의 핵심국임을 강조하면서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에 초점을 맞췄다.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데 하나는 중국의 제1도련선(일본규수-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 돌파를 저지하는 요충지이고, 다른 하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허브라는 점이다. 중국을 제1도련선 내에 가두어 놓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하지만 타이완정부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자력으로 우선방위를 해야 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위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도 재편하겠다고 했다. 대중국 전략으로 우선 미국은 미중 경제관계의 재균형을 목표로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불공정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도용, 희토류 공급망 위협 등을 타파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경제를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타이완 침공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여 집단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 북한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2017에 명시되었던 비핵화 및 비확산 관련 언급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소련붕괴 이후 클린턴 행정부부터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화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 시절 펼쳐진 세계화 정책은 중국에 오히려 엄청난 이익을 부여하여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개혁 개방되고 경제성장이 되면 자연히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모두 기대했었지만, 경제성장으로 군사대국화되면서 오히려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은 미중 패권경쟁을 넘어 미국 본토와 서반구까지 침투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1960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제외하고 서반구 남북 아메리카에는 전혀 위협세력이 없었는데 최근 중국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을 사례로 이 지역에 더이상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세계가 대미 무역 불균형과 불법 이민으로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미국이 경제적, 기술적 우위로 더 강해지고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며 미 본토와 서반구의 보호를 위해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보완하여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선언한 것이다.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폐기된 제조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의 침략을 막는 군사력 건설은 미국 만으로 할 수 없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집단방위를 위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위협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미연합 대비책을 마련할 때이다. 이번에 공개한 미국의 세계관은 지난 10여년 미국 외교정책을 지탱해온 기조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로 지목하며 방위비 증액을 넘어 무역적자 해소, 타이완 방어 기여 등 전방위적인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분담은 한국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강대국 중심 질

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받을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공급망 재편전략에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대중국 외교공간이 협소해지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지금 한창 설계를 구성 중인 한미동맹 현대화의 문서 성격도 있다. 그 내용과 시사점을 예의 분석하여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 확장성 대응, 한미연합 대북공조 강화, 한국의 역외 역할 정립,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현대화 후속조치의 정교화 등 그 심도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들이 미국 영토에 기항 할때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한국 선박제조산업 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2일 첨단 무기를 갖춘 대규모 전함을 도입하는 황금 함대(Golden Fleet) 구상을 발표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 인도-태평양 해역 제해권을 공고히 하고, 쇠락한 미국 조선업을 부흥하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해군이 대한민국의 한화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체에 한미 조선산업과 방위산업을 대폭적으로 확대 성공시켜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

미국이 새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의 국가비전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유럽은 문명의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러시아를 미국의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1970년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국제무대에 이끌어내어 미소 냉전시대 소련 봉쇄 정책의 성공으로 마침내 1991년 소련을 붕괴시켰듯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조로 거대한 세계전략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통해 북한 공산정권을 소멸하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자유민주통일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병오년(丙午年)에

이윤우 (예 소령, 공사6기)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엔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처럼

타오르는 열정
넘치는 활력으로

자유분방
도전정신으로

지혜를 모아
바라던 소망

부디부디
성취하시길

